

#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민 미 희  
교 수 이 순 형  
강 사 이 옥 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Doctoral Candidate* : Mihee Min

*Professor* : Soonhyung Yi

*Lecturer* : Okkyung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which asp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fluence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91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nd 87 children from non-divorced families.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assessing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teacher rated their internalizing problems(withdrawal, depression/anxiety) on K-CBCL scale. Sixth graders from non-divorced families perceived evaluative support higher than sixth graders from divorced families. In withdrawal, third graders from divorced families were rated higher than preschooler and sixth graders by their teacher. In depression/anxiety, third graders from divorced families were rated higher than sixth graders by their teacher.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were affected by their perceived emotional support. Namely,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who perceived less emotional support experienced more

Corresponding Author: Mihee M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h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52 Fax: 82-2-871-2506 E-mail: mihee77@snu.ac.kr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withdrawal and depression/anxiety.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위축(withdrawal), 우울/불안(depression/anxiety)

## 1. 서론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한국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2005)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4만 5천여 건이었던 이혼건수가 2004년에는 13만 9천 건으로 15년 만에 세 배가 증가하였다.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70% 정도가 성장기 아동을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어(통계청, 2005), 이혼율 증가에 비례하여 이혼가정 아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공격적, 반항적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문제(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와 초조,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내면화 문제(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7, 1999; Wallerstein & Kelly, 1980)로 구분된다. 그 중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 이혼의 영향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 즉 내면화 문제이다.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란 문제의 특성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 등과 같이 명백히 정서적이고 인지적 증상을 보이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혼 후 아동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이혼 당시의 아동의 연령(Wallerstein, 1988), 성별(He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89), 기질(Hetherington, 1989), 부모의 혼용태도, 이혼 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Kelly, 1993), 사회적 지원의 정도(Hetherington, 1989)등이 있는데, 실제로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어떤 아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히 잘 대처하면서 점차 적응을 하는 반면, 어떤 아동들은 심각한 부적응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조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과 방해가 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아동의 연령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의 연령이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있는데(오은순, 1997; 이삼연, 2002; 주소희, 2003; 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6; Furstenberg & Allison, 1985; Radovanovic, 1993), 연구 결과들은 서로 상치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이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 후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들(Emery, 1998; Wolchik, Tein, Sandler, & Doyle, 2002)이 있는가 하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응 문제가 증가하고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들(정현숙, 1993; 주소희, 2003; Jaffe, 1997)이 있다. 또한 부모 이혼의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Amato, 2001)도 있어, 부모 이혼 후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유아에서 아동기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 이혼 후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어떠한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양돈규, 1998, 양돈규, 임영식, 1998;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Windle, 1992) 및 위축(이경주, 신효식, 1997) 등의 내면화 문제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서동인, 1997). 그러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아동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 확신, 사랑, 위로, 동반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및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이혼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스트레스적인 위기과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위축,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더욱 취약해질 수가 있다.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중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임을 고려할 때 보다 어린 연령인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의 영향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가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내면화 문제(위축, 우울/불안)는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일반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일반가정 및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

제에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적 지지의 정의 및 유형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서 관심, 도움, 인정, 격려 등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형성시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Cobb(1976)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존경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세 가지로 구분했고, House(1981)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친 자신의 모습을 보여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돕는 평가적 지지,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여러 선행 연구들(노미순, 1999; 박지원, 1985; 이난영, 2001)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 정보적 지지(직업의 기회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 물질적 지지(일을 대신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은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지지 역할 유형과 지지의 정도를 통해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와 같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수를 통해 지지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이혼가정 아동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데, 편모가정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현숙, 서동인, 1997)에 따르면, 편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친구 및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편모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을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는데, 이 중 정서적 지원, 오락적 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사회적 지원을 지각했으며, 부모님과 친구로부터는 정서적 지원을, 이모로부터는 오락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혼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사별, 미혼모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배경을 지닌 편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가정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살펴 본 연구(장영서, 현은강, 1998)에서 사회적 지지 지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일반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서도 역시 연령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현숙, 1993)에서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 및 사회적 도움과 종교적 도움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가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과 달리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 위기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일반가정 아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가정 및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부모의 이혼 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문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혼 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를 보고 했는데, 이혼 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의존성,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udubaldi & Perry, 1985;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Jaffe, 1997; Skitka & Frazier, 1995). 또한 1990년대에 미국에서 행해진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연구 67개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Amato, 2001), 이혼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담임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 중 정서적 불안정, 타인과의 상호작용문제, 소외, 침울한 태도,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53%로 나타나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문제 정도를 보였고(정진영, 1993),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우울, 불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이혼가정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연, 2001).

여러 연구들(오은순, 1997; 이삼연, 2002; 주소희, 2003; Buchanan *et al.*, 1996; Furstenberg & Allison, 1985; Radovanovic, 1993)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이혼 후 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있어 아동의 연령과 같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내면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능력 즉 이혼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낮은 자존감 및 우울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이혼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애착을 형성한 부모와의 관계가 와해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안전에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Emery, 1998),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며(Wallerstein & Kelly, 1980),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Wolchik *et al.*, 2002)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반대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 이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학령기(8-12세)의 이혼가정 아동이 슬픔, 스트레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Jaffe, 1997), 이혼 당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1993; 주소희, 2003). 한편 나이에 관계없이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은 같다는 연구들(Amato, 2001; Amato & Keith, 1991)도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부모 이혼 후 아동이 경험하는 내면화 문제에서 연령 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연구들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후 경험하는 내면화 문제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 4.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지각의 영향

Bowlby(1973)는 사회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이 좌절을 이겨내게 해주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도전에 견디는 능력을 준다고 하였으며, 선행연구들(구자은, 2000; 노미순, 1999; 이경주, 1997; Demaray & Malecki, 2002; Esposito & Clum, 2002)은 주변의 타인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부모, 친구 및 교사의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양돈규, 1998; 양돈규, 임영식, 1998), 가족지원이 낮을수록 비행과 우울이 높으며(Windle, 1992), 교사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Dubois *et al.*, 1992).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주, 신효식, 1997)에서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사회적 위축 등 내적 행동문제가 낮았다.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 남아는 지지적이고 양육적인 할아버지가 있을 때 행동문제가 훨씬 줄어들었고(Hetherington *et al.*, 1989), 자매관계의 질이 정서적인 지지기반으로써 이혼 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allerstein, 1988), 편모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 및 이웃의 도움을 구

하는 정도가 클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서동인, 1997).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사회적 지지 제공원이 누구냐에 따라 아동의 내면화 문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지,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지 등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이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내면화 문제의 관련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양돈규, 임영식, 1998; 이경주, 1997; Garnefski & Diekstra, 1996)이나 비행청소년(최명규, 양익홍, 1999)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내면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가정 아동 및 이혼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4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동, 17개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 6학년 아동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기와 아동기는 상황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는 인지 능력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만 5세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은 남아가 44명, 여아가 43명이었고, 이혼가정 아동은 남아가 51명, 여아가 40명이었다. 사회경제

적 지위는 가계 소득에 따라 150만원 미만은 하,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는 중, 300만원 이상은 상으로 구분한 결과, 상이 32.2%, 중이 27.8%, 하가 40%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         | 일반가정 아동 | 이혼가정 아동 | 계   |
|---------|---------|---------|-----|
| 만 5세 아동 | 28      | 31      | 59  |
| 3학년     | 29      | 30      | 59  |
| 6학년     | 30      | 30      | 60  |
| 전 체     | 87      | 91      | 178 |

## 2. 측정도구

### 1)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로, 아동의 연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으로 하여금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적도록 하였고, 각각의 사회적 지지 유형에 적은 사람의 총 수를 사회적 지지의 정도로 보았다.

〈표 2〉 사회적 지지의 유형

| 사회적 지지 | 문항 예                                   |
|--------|--|
| 정서적 지지 |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평가적 지지 | 내가 한 일이 잘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정보적 지지 |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물질적 지지 | 내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마련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2)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

#### (1) 위축

아동의 위축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을 변안한 K-CBCL(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의 위축 척도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5이었다.

#### (2) 우울/불안

아동의 우울/불안은 K-CBCL(오경자 외 3인, 1997)의 우울/불안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4점부터 7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한 정서와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9이었다.

## 3. 연구절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 6명과 초등학교 3학년 4명, 6학년 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4곳의 어린이집과 17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사전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원장 및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고, 담임교사를 통해 각 학급에서 이혼가정 아동과 동수의 일반가정 아동을 표집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을 선정할 때, 담임교사에게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인지 및 행동 발달 수준이 비슷하며, 이혼가정 아동과 학급에서 가장 친한 일반가정 아동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에 앞서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고, 해당 학급에서 이혼가정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 모두가 한꺼번에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아동이 가정환경 배경이 조사 대상 선정의 이유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 5세 아동은 어린이집의 별도의 공간에서 아동학전공 대학원생과 아동이 일대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의 반응을 들어 질

문지에 기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은 학교의 별도의 공간에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의 지도 하에 5~6명이 동시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유아의 경우 자신의 내면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응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 대상 모두에게 일관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유아와 아동 모두 아동의 검사에 앞서 담임교사에게 해당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질문지를 부탁하였고, 아동의 검사 후에 회수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alpha$ 값,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및 Scheffe' 추후검증, t검증,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차이의 분석에 앞서, 사회적 지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1)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의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F=25.137, df=2, p<.001), 평가적 지지(F=18.791, df=2, p<.001), 정보적 지지(F=10.858, df=2, p<.001), 물질적 지지(F=14.641, df=2, p<.001)의 4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표 3>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의 전반적 경향

| 사회적 지지 | 연 령     | 일반가정 아동 |              | 이혼가정 아동 |             | 전 체 |             |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정서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4.39(2.233)  | 31      | 4.28(1.875) | 59  | 4.31(2.036) |
|        | 3학년     | 29      | 6.48(1.920)  | 30      | 5.33(2.644) | 59  | 5.90(2.369) |
|        | 6학년     | 30      | 10.07(6.858) | 30      | 8.43(4.840) | 60  | 9.25(5.942) |
|        | 전체      | 87      | 7.05(4.920)  | 91      | 5.98(3.765) | 178 | 6.50(4.388) |
| 평가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32(1.722)  | 31      | 4.16(3.078) | 59  | 3.76(2.542) |
|        | 3학년     | 29      | 6.31(2.451)  | 30      | 5.00(3.373) | 59  | 5.64(3.004) |
|        | 6학년     | 30      | 9.97(6.360)  | 30      | 5.80(3.231) | 60  | 7.88(5.425) |
|        | 전체      | 87      | 6.61(4.900)  | 91      | 4.98(3.263) | 178 | 5.78(4.213) |
| 정보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71(1.922)  | 31      | 4.29(4.496) | 59  | 4.02(3.501) |
|        | 3학년     | 29      | 5.66(2.058)  | 30      | 4.57(2.269) | 59  | 5.10(2.218) |
|        | 6학년     | 30      | 7.67(4.147)  | 30      | 5.73(2.993) | 60  | 6.70(3.716) |
|        | 전체      | 87      | 5.72(3.312)  | 91      | 4.86(3.418) | 178 | 5.28(3.385) |
| 물질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07(1.864)  | 31      | 4.29(4.692) | 59  | 3.71(3.658) |
|        | 3학년     | 29      | 5.55(2.458)  | 30      | 4.23(1.924) | 59  | 4.88(2.283) |
|        | 6학년     | 30      | 8.37(6.212)  | 30      | 6.50(3.785) | 60  | 7.43(5.186) |
|        | 전체      | 87      | 5.72(4.561)  | 91      | 5.00(3.777) | 178 | 5.35(4.183) |

〈표 4〉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 분산분석

| 사회적 지지 | 변 동 원   | 자 승 합    | 자 유 도 | 평균자승    | F         |
|--------|---------|----------|-------|---------|-----------|
| 정서적 지지 | 이혼여부    | 42,979   | 1     | 42,979  | 2.855     |
|        | 연령      | 756,821  | 2     | 378,411 | 25.137*** |
|        | 이혼여부×연령 | 16,546   | 2     | 8,273   | 0.550     |
|        | 오차      | 2589,239 | 172   | 15,054  |           |
| 평가적 지지 | 이혼여부    | 106,212  | 1     | 106,212 | 7.813**   |
|        | 연령      | 510,926  | 2     | 255,463 | 18.791*** |
|        | 이혼여부×연령 | 187,570  | 2     | 93,785  | 6.899**   |
|        | 오차      | 2338,274 | 172   | 13,595  |           |
| 정보적 지지 | 이혼여부    | 29,547   | 1     | 29,547  | 2.933     |
|        | 연령      | 218,739  | 2     | 109,370 | 10.858*** |
|        | 이혼여부×연령 | 48,328   | 2     | 24,164  | 2.399     |
|        | 오차      | 1732,553 | 172   | 10,073  |           |
| 물질적 지지 | 이혼여부    | 19,095   | 1     | 19,095  | 1.280     |
|        | 연령      | 436,708  | 2     | 218,354 | 14.641*** |
|        | 이혼여부×연령 | 80,168   | 2     | 40,084  | 2.688     |
|        | 오차      | 2565,250 | 172   | 14,914  |           |

\*\*\* p&lt;.001, \*\* p&lt;.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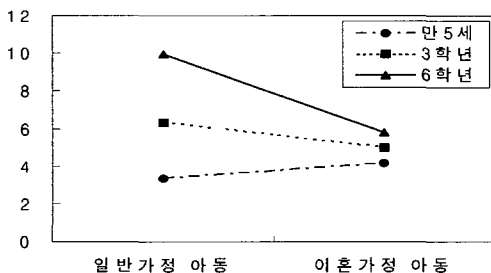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평가적 지지에서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7.813$ ,  $df=1$ ,  $p<.01$ ). 즉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평가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평가적 지지에서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F=7.813$ ,  $df=2$ ,  $p<.01$ )가 나타났다(표 4). 이처럼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림 1〉과 같이, 6학년 아동의 경우에 일

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평가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t=3.199$ ,  $p<.01$ ), 만 5세 아동과 3학년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차이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 보면, 만 5세 아동의 경우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4.39명인데 비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3.07명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3학년 아동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6.48명인데 비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5.55명으로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했다. 6학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10.07명인데 비해,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7.67명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일반가정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



〈그림 1〉 평가적 지지 지각에서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표 5>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차이

| 사회적지지  | 연 령     | N  | M(SD)        | F값        | Scheffe' |
|--------|---------|----|--------------|-----------|----------|
| 정서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4.39(2.233)  | 12.587*** | a        |
|        | 3학년     | 29 | 6.48(1.920)  |           | a        |
|        | 6학년     | 30 | 10.07(6.858) |           | b        |
| 평가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32(1.722)  | 19.014*** | a        |
|        | 3학년     | 29 | 6.31(2.451)  |           | b        |
|        | 6학년     | 30 | 9.97(6.360)  |           | c        |
| 정보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71(1.922)  | 13.266*** | a        |
|        | 3학년     | 29 | 5.66(2.058)  |           | b        |
|        | 6학년     | 30 | 7.67(4.147)  |           | c        |
| 물질적 지지 | 만 5세 아동 | 28 | 3.07(1.864)  | 12.381*** | a        |
|        | 3학년     | 29 | 5.55(2.458)  |           | a        |
|        | 6학년     | 30 | 8.37(6.212)  |           | b        |

\*\*\* p<.001

지 중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F=12.587, p<.001), 평가적 지지(F=19.014, p<.001), 정보적 지지(F=13.266, p<.001), 물질적 지지(F=12.381, p<.05)의 모든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서 연령 간 차이가 있었다. 6학년 아동이 만5세 아동과 3학년 아동에 비해, 정서적

지지 및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서는 연령에 높아짐에 따라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 차이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살펴 보면, 만 5세 아동의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각 유형, 즉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4.2명 내외로 비슷하였다. 3학년 아동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표 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

| 사회적 지지 | 연 령     | N  | M(SD)       | F값        | Scheffe' |
|--------|---------|----|-------------|-----------|----------|
| 정서적 지지 | 만 5세 아동 | 31 | 4.28(1.875) | 12.855*** | a        |
|        | 3학년     | 30 | 5.33(2.644) |           | a        |
|        | 6학년     | 30 | 8.43(4.840) |           | b        |
| 평가적 지지 | 만 5세 아동 | 31 | 4.16(3.078) | 1.965     |          |
|        | 3학년     | 30 | 5.00(3.373) |           |          |
|        | 6학년     | 30 | 5.80(3.231) |           |          |
| 정보적 지지 | 만 5세 아동 | 31 | 4.29(4.496) | 1.539     |          |
|        | 3학년     | 30 | 4.57(2.269) |           |          |
|        | 6학년     | 30 | 5.73(2.993) |           |          |
| 물질적 지지 | 만 5세 아동 | 31 | 4.29(4.692) | 3.746*    | a b      |
|        | 3학년     | 30 | 4.23(1.924) |           | a        |
|        | 6학년     | 30 | 6.50(3.785) |           | b        |

\*\*\*p<.001, \*p<.05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5.33명인데 비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4.23명으로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했다. 6학년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8.43명인데 비해,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4.73명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 $F=12.855$ ,  $p<.001$ )와 물질적 지지( $F=3.746$ ,  $p<.05$ )에서 연령 간 차이가 있었다. 6학년 아동이 만5세 아동과 3학년 아동에 비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로 지각하였고,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 2.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분석에 앞서,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 1)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내면화 문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위축( $F=4.850$ ,

<표 7>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전반적 경향

| 내면화 문제 | 연령      | 일반가정 아동 |               | 이혼가정 아동 |               | 전체  |               |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위축     | 만 5세 아동 | 28      | 16.29( 5.149) | 31      | 20.10( 4.874) | 59  | 18.29( 5.321) |
|        | 3학년     | 29      | 17.76( 7.972) | 30      | 24.00( 6.379) | 59  | 20.93( 7.806) |
|        | 6학년     | 30      | 15.87( 6.095) | 30      | 19.53( 4.869) | 60  | 17.70( 5.773) |
|        | 전체      | 87      | 16.63( 6.497) | 91      | 21.20( 5.712) | 178 | 18.97( 6.507) |
| 우울/불안  | 만 5세 아동 | 28      | 24.82( 7.741) | 31      | 29.97( 7.889) | 59  | 27.53( 8.173) |
|        | 3학년     | 29      | 27.76(10.291) | 30      | 33.10( 7.490) | 59  | 30.47( 9.297) |
|        | 6학년     | 30      | 22.47( 7.394) | 30      | 27.60( 7.449) | 60  | 25.03( 7.800) |
|        | 전체      | 87      | 24.99( 8.749) | 91      | 30.22( 7.860) | 178 | 27.66( 8.688) |

<표 8>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문제 분산분석

| 내면화 문제 | 변동원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자승     | F         |
|--------|----------|-----------|-----|----------|-----------|
| 위축     | 이혼여부     | 929.657   | 1   | 929.657  | 25.989*** |
|        | 연령       | 346.985   | 2   | 173.493  | 4.850**   |
|        | 이혼×여부 연령 | 61.906    | 2   | 30.953   | 0.865     |
|        | 오차       | 6152.668  | 172 | 35.771   |           |
| 우울/불안  | 이혼여부     | 1205.287  | 1   | 1205.287 | 18.392*** |
|        | 연령       | 869.905   | 2   | 434.953  | 6.637**   |
|        | 이혼×여부 연령 | 0.402     | 2   | 0.201    | 0.003     |
|        | 오차       | 11271.752 | 172 | 65.533   |           |

\*\*\* $p<.001$ , \*\* $p<.01$

df=2, p<.01), 우울/불안(F=6.637, df=2, p<.01)의 내면화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 및 6학년 아동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요 과를 살펴보면, 위축(F=25.989, df=1, p<.001), 우울/불안(F=18.392, df=1, p<.001)의 내면화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차이

일반가정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위축, 우울/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

| 내면화 문제 | 연령      | N  | M(SD)         | F값    |
|--------|---------|----|---------------|-------|
| 위축     | 만 5세 아동 | 28 | 16.29(5.149)  | 0.679 |
|        | 3학년     | 29 | 17.76(7.972)  |       |
|        | 6학년     | 30 | 15.87(6.095)  |       |
| 우울/불안  | 만 5세 아동 | 28 | 24.82(7.741)  | 2.819 |
|        | 3학년     | 29 | 27.76(10.291) |       |
|        | 6학년     | 30 | 22.47(7.394)  |       |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

이혼가정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위축, 우울/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사가 지각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 점수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위축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았고, 6학년 아동의 위축 점수가 19.53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가 지각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6.075, P<.01),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은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 및 6학년 아동보다 높았고, 만 5세 아동과 6학년 아동 간에

<표 10>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의 차이

| 내면화 문제 | 연령      | N  | M(SD)        | F값      | Scheffe' |
|--------|---------|----|--------------|---------|----------|
| 위축     | 만 5세 아동 | 31 | 20.10(4.874) | 6.075** | a        |
|        | 3학년     | 30 | 24.00(6.379) |         | b        |
|        | 6학년     | 30 | 19.53(4.869) |         | a        |
| 우울/불안  | 만 5세 아동 | 31 | 29.97(7.889) | 3.938*  | a b      |
|        | 3학년     | 30 | 33.10(7.490) |         | a        |
|        | 6학년     | 30 | 27.60(7.449) |         | b        |

\*\*P<.01, \*p<.05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가 지각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 점수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우울/불안 점수가 33.10으로 가장 높고, 6학년 아동의 우울/불안 점수가 27.60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가 지각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3.938, p<.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은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높았다. 교사가 지각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 중 위축, 우울/불안 모두에서 3학년 아동이 가장 높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6학년 아동이 가장 적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모두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내면화 문제에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사회적 지지 유형의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1)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표 11). 분석결과 아동의 위축은 정서적 지지(r=-.222,

P<.05), 물질적 지지( $r=-.220$ ,  $P<.05$ )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아동의 위축은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 및 물질적 지지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표 11〉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간의 관계

|           | 1       | 2       | 3       | 4      |
|-----------|---------|---------|---------|--------|
| 1. 정서적 지지 |         |         |         |        |
| 2. 평가적 지지 | .668*** |         |         |        |
| 3. 정보적 지지 | .467*** | .759*** |         |        |
| 4. 물질적 지지 | .534*** | .682*** | .711*** |        |
| 5. 위축     | -.222*  | -.105   | -.165   | -.220* |

\*\*\* $p<.001$ , \* $p<.05$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유형의 하위범주 중 위축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845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위축에 정서적 지지( $\beta=-.222$ ,  $p<.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김은경, 2000; 이경주, 신효식,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물질적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지지의 아동의 위축에 대한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표 12〉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F      |
|------|--------|-------|---------|----------------|--------|
| 위축   | 정서적 지지 | -.337 | -.222   | .049           | 4.634* |

\*  $p<.05$

2)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 아동의 우울/불안은 정서적 지지( $r=-.246$ ,  $P<.01$ ), 정보적 지지( $r=-.198$ ,  $p<.05$ ), 물질적 지지( $r=-.210$ ,  $P<.05$ )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아동의 우울/불안은 아동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표 13〉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유형간의 관계

|           | 1       | 2       | 3       | 4      |
|-----------|---------|---------|---------|--------|
| 1. 정서적 지지 |         |         |         |        |
| 2. 평가적 지지 | .668*** |         |         |        |
| 3. 정보적 지지 | .467*** | .759*** |         |        |
| 4. 물질적 지지 | .534*** | .682*** | .722*** |        |
| 5. 우울/불안  | -.246** | -.104   | -.198*  | -.210* |

\* $p<.05$ , \*\* $p<.01$ , \*\*\* $p<.001$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유형의 하위범주 중 우울/불안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887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정서적 지지( $\beta=-.246$ ,  $p<.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지지의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표 14〉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유형의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F      |
|-------|--------|-------|---------|----------------|--------|
| 우울/불안 | 정서적 지지 | -.513 | -.246   | .060           | 5.721* |

\*  $p<.05$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반가정 및 이혼가정의 아동을 대상으

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및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 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한다. 즉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6학년 아동의 경우, 더 어린 연령의 아동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으로 확장되기(장영서, 현오강, 1998)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중 평가적 지지에서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평가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 구체적으로 6학년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평가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만 5세 아동과 3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다. 6학년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의 시기에 이제까지 습득한 가치 있는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정교화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비교를 통한 능력 및 성취의 평가가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시기이다. 이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한 일이 옳고 그른가를 듣고,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평가적 지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가정의 경우 직면한 가족 문제에 몰입하여 아동의 가치 판단 및 성취에 대한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이후 이혼가정의 아동들의 학업성취에서의 부적응(Amato & Keith, 1991),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자기통제결핍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 책임감 결핍, 인식 및 이해능력의 부족(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각한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연령 간 차이가 있었는데, 6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과 3학년 아동에 비해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서는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한편,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만 5세 아동은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가 비슷하였는데 반해,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6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과 3학년 아동에 비해 정서적 지지를, 3학년 아동에 비해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지각한다.

이는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모든 사회적 지지 유형에서 연령차이가 뚜렷한데 반해,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만 연령차이가 있을 뿐,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수에서는 연령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정서적 지지임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들이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수준이 더 높다. 또한 위축, 우울/불안 모두에서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 및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위축,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있어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 및 6학년 아동에 비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기질 및 상황에 대한 인지적 판단 성향,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부모의 수용성 및 양육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면화 문제에 3학년 아동이 가장 취약하게 나온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데 반해,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이혼가정의 경우 3학년 아동이 위축에서 만 5세 아동 및 6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우울/불안에서 6학년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가 그 연령의 아동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영향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부모의 이혼 후 학령기 아동보다 유아기 더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정현숙, 1993)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8-10세 및 11-13세 아동을 대상으로 11-13세 아동의 심리적응 문제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주소희, 2003)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6학년 아동이 위축, 우울/불안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가 이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는 하지만 부모가 다시 화해할 것이라는 공상을 하고,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며, 한 부모가 떠나면 심각한 허탈감을 느끼며 두 부모 사이에서 충성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반해, 고학년 아동은 저학년 아동에 비해 인지적으로 성숙하여 이혼의 이유를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안일에도 많은 책임을 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지지 유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정서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에게 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양돈규, 1998; Varni, Rubenfeld, Talbot, & Setoguchi, 1989),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사회적 위축 등의 내적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난다(이경주, 신효식, 1997)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사랑,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정서적인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혼가정의 경우 빈곤계층이 많고 특히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거를 하는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 물질적 지지보다는 가족, 친구, 교사 등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아동 자신의 지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되, 애정과 관심을 제공하는 정서적 중재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및 연령을 살펴보았는데,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는 개인차가 심하여 사회적 지지와 연령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성별, 기질 및 성격 등의 영향을 받는다(Hetherington *et al.*, 198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 및 아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혼가정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데,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Steinberg, 1993), 사회적 지지 제공자와 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시기가 아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라는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지원체계임을 밝힘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지도와 문제행동 감소 및 역할을 위해, 유아교육기관, 학교, 친구, 교사,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돈규(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돈규, 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난영(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지지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연(2001). 이혼가정 아동의 발달. 인문논총, 14, 143-163.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사회복지학, 10, 37-64.
- 장영서, 현온강(1998).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아동기의 사회적지지 -Social Convoy Model을 토대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191-206.
- 정진영(1993).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 81-108.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6.
- 정현숙, 서동인(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주소희(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최명구, 양익홍(1999). 청소년기 품행장애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1), 429-446.
- 통계청(2005). 인구동태조사.
-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1991)'s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 (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s'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9), 300-31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3), 393-403.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 39(3), 305-316.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Emery, R. E. (199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Esposito, C. L., & Clum, G.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bility: Application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2), 137-146.
- Furstenberg, F. F., & Allison, P. D. (1985). How marital dissolution affects children: Variations by age and sex.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Garnefski, N., & Diekstra, R. (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2), 1657-1664.
- Giudubaldi, J., & Perry, J. D. (1985). Post-divorce family relationships as mediating factor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children. *Journal of Social Issues*, 35, 79-96.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 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5), 518-530.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7). The effects of divorce on fathers and their children. In M.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 ed.)(pp.191-211).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therington, E., & Stanley-Hagan, M. (1999). Diversity in stepfamilies. In D. Demo, K. Allen, & M. Fine(Eds.), *Handbook of family divers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therington, E. M., Stanley-Hagan, M., & Anderson, E. (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 Addison-Wesley.
- Jaffe, M. L. (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oston, MA: Allyn & Bacon.
- Kelly, J. B. (1993). Current research on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1, 29-49
- Radovanovic, H. (1993). 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coping styles in litigating separated families: relationships with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1), 119-135.
- Skitka, L. J., & Frazier, M. (1995). Ameliorating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Do small group interventions work?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4(3), 159-179.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3rd ed.). McGraw-Hill, Inc.
- Varni, J. W., Rubinfeld, L. A., Talbot, D., & Setoguchi, Y. (1989). Determinants of Self-Esteem in Children with Congenital /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0(1), 13-16.
- Wallerstein, J. S. (1988). Children of divorce: Stress and developmental task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MD :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 Windle, M.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Wolchik, S. A., Tein, J., Sandler, I. N., & Doyle, K. W. (2002). Fear abandon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9.

---

(2005년 5월 30일 접수, 2005년 9월 22일 채택)